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되며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고용률·경활률 3월 기준 역대 최고

- 건설·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 계속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노력 지속·강화

① '25.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대비 +0.1%p 상승(3월 기준 역대 최고), 15~64세 고용률은 69.3%로 전년대비 +0.2%p 상승(3월 기준 역대 최고)하였다. 경활률은 64.6%로 전년대비 +0.3%p 상승(3월 기준 역대 최고)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 3월 고용지표('24→'25년, %): <고용률> 62.4 → **62.5** <경활률> 64.3 → **64.6** <실업률> 3.0 → **3.1**

○ 연령별로는 30대(80.4%, +1.0%p) 및 40대(79.4%, +0.9%p)·60세 이상(46.4%,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청년층(44.5%, △1.4%p)·50대(77.1%, △0.2%p)에서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9.3만명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40.1→56.7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6.7→△18.5만명)·제조업(△7.4→△11.2만명)·농림어업(△1.9→△7.9만명)은 감소하였다. 지위별로는 상용직(23.3→23.4만명)·임시직(3.6→12.6만명)이 지속 증가하고 일용직(△9.2→△10.0만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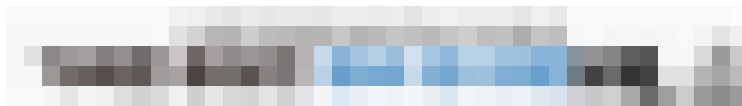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2/4)14.6 (3/4)14.6 (4/4)5.2 [^{12월}△5.2] ('25.1)13.5 (2)13.6 **(3)19.3**

③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 및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주요업종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④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25년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점검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고용창출 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및 청년고용 윌케어플랫폼 등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성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이병준 (044-215-8532)
고용노동부 <공동>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천경기 (044-202-7260)
		담당자	사무관	신효빈 (044-202-7284)



1. '25.3월 고용동향 특징

□ 고용률 **62.5%** (3월 역대 1위), 경제활동참가율 **64.6%** (3월 역대 1위), 실업률 **3.1%**, 취업자수 **+19.3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 62.5%로 전년대비 상승(^{3월 기준}역대 1위, '82.7월~), 15~64세 고용률 69.3%로 +0.2%p 상승(^{3월 기준}역대 1위, '89.1월~)

* 고용률(15세+, %): ('24.2/4)63.3 (3/4)63.3 (4/4)62.6 [^{12월} 61.4] ('25.1)61.0 (2)61.7 **(3)62.5**
고용률(15-64세, %): ('24.2/4)69.8 (3/4)69.8 (4/4)69.7 [^{12월} 69.4] ('25.1)68.8 (2)68.9 **(3)69.3**

○ 경제활동참가율 64.6%로 +0.3%p 상승(^{3월 기준}역대 1위, '99.6월~)

* 경합률(15세+, %): ('24.2/4)65.2 (3/4)64.7 (4/4)64.4 [^{12월} 63.9] ('25.1)63.4 (2)63.7 **(3)64.6**

○ 실업률은 3.1%로 +0.1%p 상승(^{3월 기준}역대 최저 4위, '99.6월~)

* 실업률(15세+, %): ('24.2/4)2.9 (3/4)2.2 (4/4)2.8 [^{12월} 3.8] ('25.1)3.7 (2)3.2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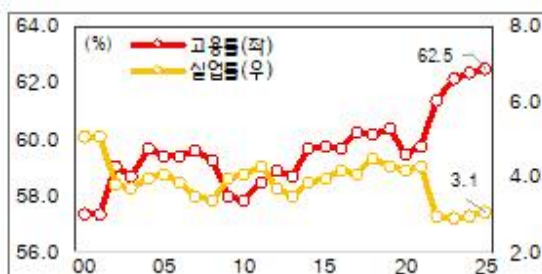
○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9.3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2/4)14.6 (3/4)14.6 (4/4)5.2 [^{12월} △5.2] ('25.1)13.5 (2)13.6 **(3)19.3**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0.2만명 감소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4.10)△1.6 (11)△1.2 (12)△13.9 ('25.1)27.6 (2)7.0 **(3)△0.2**

15세 이상 고용률·실업률(원계열, 매년 3월)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대비)



□ **(산업)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

○ **(서비스)** 49개월 연속 증가 지속, 증가폭 확대(+40.1 → +56.7만명)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14.6 (3/4)30.5 (4/4)26.8 [^{12월} 17.7] ('25.1)34.9 (2)40.1 **(3)56.7**

- **보건복지(+21.2만명)·공공행정업(+8.7만명)·금융보험(+6.5만명) 증가폭 확대**

*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 10.2 (3/4)8.5 (4/4)6.9 [^{12월} △0.3] ('25.1)11.9 (2)19.2 **(3)21.2**

*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 2.0 (3/4)3.6 (4/4)3.4 [^{12월} +0.3] ('25.1) 3.3 (2) 3.8 **(3) 8.7**

* 금융보험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 1.3 (3/4)2.8 (4/4)2.7 [^{12월} +3.1] ('25.1) 3.1 (2) 2.9 **(3) 6.5**

- **정보통신(+6.1만명)·전문과학(+3.7만명)·숙박음식(+5.6만) 증가 지속**

* 정보통신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6.4 (3/4)9.6 (4/4)6.4 [^{12월} 5.2] ('25.1)8.1 (2)6.5 **(3)6.1**

* 전문과학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2.7 (3/4)7.1 (4/4)7.8 [^{12월} 10.7] ('25.1)9.8 (2)8.0 **(3)3.7**

* 숙박음식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5.2 (3/4)2.9 (4/4)2.1 [^{12월} 1.2] ('25.1)2.7 (2)5.6 **(3)5.6**

- **도소매업(△2.6만명)·사업시설업(△2.4만명) 감소폭 축소**

* 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5.4 (3/4)△7.4 (4/4)△11.1 [^{12월} △9.6] ('25.1)△9.1 (2)△6.5 **(3)△2.6**

* 사업시설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6.4 (3/4)△3.6 (4/4)△6.9 [^{12월} △5.8] ('25.1)△2.9 (2)△7.4 **(3)△2.4**

○ **(제조)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폭 확대(△11.2만명)**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4.9 (3/4)△3.2 (4/4)△7.5 [^{12월} △9.7] ('25.1)△5.6 (2)△7.4 **(3)△11.2**

○ **(건설)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 지속(△18.5만명)**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3.6 (3/4)△8.8 (4/4)△11.5 [^{12월} △15.7] ('25.1)△16.9 (2)△16.7 **(3)△18.5**

○ **(농림) 2개월 연속 감소 및 감소폭 확대(△7.9만명)**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2.0 (3/4)△3.6 (4/4)△2.5 [^{12월} 2.5] ('25.1)0.7 (2)△1.9 **(3)△7.9**

□ **(지위·연령) 상용직 58.1%(3월 역대 최고), 3~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23.4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상용직 비중(3월, %): ('00)30.3 ('05)34.9 ('10)42.5 ('15)48.5 ('20)54.7 ('24)57.6 **(25)58.1**

임금근로자 증감(2→3월, 전년비, 만명): <상용>23.3→**23.4** <임시>3.6→**12.6** <일용>△9.2→**△10.0**

- **고용有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감소, 고용無 자영업자 증가**

* 비임금 증감(전년비, 2→3월, 만명): <고용有> △2.6→**△2.9** <고용無> 1.3→**2.8** <무급> △2.7→**△6.5**

- (연령) 30대·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청년층·50대 고용률 하락

	전체	청년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인구(전년비, 만명)	+17.9	△20.8	+5.5	△15.2	△1.2	+49.5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19.3	△20.6	+10.9	△4.9	△2.6	+36.5
고용률(% , %p)	62.5 (+0.1)	44.5 (△1.4)	80.4 (+1.0)	79.4 (+0.9)	77.1 (△0.2)	46.4(+0.9)

- 청년층 고용률(44.5%, △1.4%p) 하락, 실업률(7.5%, +1.0%p) 상승

(%, %p)		'24년	2/4	3/4	4/4	'25.1월	2월	3월
고용률	청년	46.1 (△0.4)	46.6 (△0.3)	46.4 (△0.4)	45.3 (△0.9)	44.8 (△1.5)	44.3 (△1.7)	44.5 (△1.4)
	20초	45.1 (△0.6)	46.0 (△0.3)	45.6 (△0.9)	43.9 (△1.8)	43.3 (△1.7)	42.3 (△2.7)	42.3 (△2.1)
	20後	72.5 (+0.2)	72.7 (△0.1)	72.5 (+0.1)	72.2 (△0.4)	71.3 (△1.4)	70.9 (△1.4)	71.5 (△1.3)
실업률	청년	5.9 (0.0)	6.6 (+0.4)	4.9 (△0.3)	5.6 (+0.3)	6.0 (0.0)	7.0 (+0.5)	7.5 (+1.0)
	20초	6.3 (+0.5)	7.2 (+1.4)	4.6 (△0.4)	5.8 (+0.8)	6.2 (△0.5)	8.8 (+1.6)	9.2 (+0.9)
	20後	5.6 (△0.3)	6.2 (△0.3)	5.0 (△0.5)	5.6 (+0.2)	5.9 (+0.3)	6.3 (+0.4)	6.8 (+1.3)

- 청년층 쉬었음(45.5만명, +5.2만명)은 20대 초반(20.6만명, +4.9만명) 중심 증가

◇ 일자리 어려움 겪는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비중(3월 14.9%, 119.8만명)은 '24년보다 상승(+1.4%p, +8.4만명)했으나, 예년('20~'24년 평균 14.9%)과 유사한 수준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실업자 비중(3월 기준, %)

(3월 기준, 만명, %)		최근 5년 평균 (‘20~’24)	‘20	‘21	‘22	‘23	‘24	‘25
합계 (A+B+C)	수(인구내비중)	128.4 (14.9)	144.6 (16.1)	142.8 (16.2)	127.4 (14.8)	116 (13.7)	111.4 (13.5)	119.8 (14.9)
실업자(A)	수(인구내비중)	34.0 (3.9)	40.2 (4.5)	42.6 (4.8)	30.9 (3.6)	30.0 (3.5)	26.3 (3.2)	28.9 (3.6)
취준생(B)	수(인구내비중)	52.4 (6.1)	59.1 (6.6)	58.7 (6.7)	54.2 (6.3)	45.2 (5.3)	44.8 (5.4)	45.4 (5.7)
쉬었음(C)	수(인구내비중)	42.0 (4.9)	45.3 (5.1)	41.5 (4.7)	42.3 (4.9)	40.8 (4.8)	40.3 (4.9)	45.5 (5.7)

* 최근의 청년층 쉬었음 증가추세는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실업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증가하는 데에 일부 기인한 측면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도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3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2/4)1.3 (3/4)1.2 (4/4)0.8 [12월 0.9] ('25.1)0.9 (2)1.1 (3)1.0 [80.4%]
4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2/4)0.2 (3/4)0.6 (4/4)0.4 [12월 0.3] ('25.1)0.6 (2)0.6 (3)0.9 [79.4%]

- 50대는 고용률 하락하였으나 역대 3위로 높은 수준, 60세 이상은 직접일자리사업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 5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2/4)△0.6 (3/4)△0.5 (4/4)△0.2 [12월 △0.2] ('25.1)△0.3 (2)△0.1 (3)△0.2 [77.1%]
60세+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2/4) 0.4 (3/4) 0.3 (4/4) 0.2 [12월 △0.3] ('25.1)1.0 (2)0.9 (3)0.9 [46.4%]

2. 평가 및 대응

□ **취업자수는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 3월 기준 역대 최고**
다만, 내수회복 지연·대외리스크 확대 등 불확실성 상존

- 서비스업 증가폭이 큰 폭 확대되며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
 - 직접일자리사업 효과와 돌봄인력 수요 확대가 복합 작용하며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2월 23.0→3월 29.9만명)
 - 금융보험·숙박음식 등 일부 내수 서비스업도 증가
- * 공공·복지外 서비스업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24.12)18.0 ('25.1)19.7 (2)17.1 (3)16.4
- 한편,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 등 주요업종의 고용 감소세 및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모습
- * 취업자 증감(2월→3월 만명): (건설)△16.7 → △18.5 (제조)△7.4 → △11.2 (도소매)△6.5→△2.6 (청년)△23.5 → △20.6 (비임금)△4.1 → △6.6
-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며 제조업 및 연관산업 고용 창출여력에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취약계층 고용안정 노력 강화**

- '25년 일자리 예산 등을 신속 집행·점점하고,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안 마련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강구
-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고용 창출여력 뒷받침
- 기업 고용애로해소 핫라인* 및 청년고용을케어플랫폼 차질없이 운영 하고,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 지속 발굴·추진

* 2.14일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 3.19일 1차 정례회의 개최